

## MBC 뉴우스 데스크 半百年!

1970년 10월 5일 밤 11시에 20분간 처음 방송됐던 『mbc 뉴우스 데스크』가 어느덧 半百年을 맞았다. TV가 개국하기 전 미국 방송계를 돌아보고 온 김기주 편집차장이 미국 CBS의 '크롱카이트 쇼'를 소개하며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제안한 것이 발단이였다. 기자가 써준 원고를 아나운서가 읽어가던 종래의 뉴스 진행 방식에서 '앵커+기자의 현장 리포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뉴스 전달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과감한 시도는 그러나 당시의 방송 장비가 뒷받침을 해주지 못했다.

ENG카메라가 보급되기 전,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하는 흥내를 내면 별도로 녹음한 필름에 화면이 일치되도록 편집해서 동시녹음 화면처럼 보이게 했고, 주조정실에 두 대밖에 없는 프로젝터에 뉴스 필름과 슬라이드를 끼우고 녹음



된 리포트에 맞춰 웅색하게 생방송을 했다. 『뉴스데스크』의 출범으로 TV뉴스 형태도 바뀌고, 방송 3사의 뉴스가 프라임시간대에 편성됨으로써 신문보다 TV뉴스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좋아 방송 시간이 30분 앞당겨지고 분량도 30분으로 늘었다가 1년 후 TBC와 KBS가 같은 형태로 추격해오자 아예 10시 뉴스로 고정됐다. 1976년~2010년에는 9시, 2010년~2012년은 8시 55분, 2012년~2020년은 7시 55분에 방송됐으며 현재는 7시 50분(주말은 7시 55분)에 방송된다.

1970년 첫 방송 당시의 타이틀은 『mbc 뉴우스데스크』였지만 1976년~1980년 『뉴스의 현장』으로 바뀌었다가 이후 『뉴스데스크』로 고정됐다. 초대 앵커였던 박근숙 보도국장 이후 50년간 남자 앵커 56명, 여자 앵커 32명이 진행을 맡았으며, 최장수 앵커는 두 차례에 걸쳐 13년간 데스크를 지킨 엄기영 앵커다. 50년이 된 오늘도 『뉴스데스크』는 변함없이 '새로움을 탐험'하고 있다.

## 발전 기금을 내주신 분들(9월 10일 이후)

- ▶ 김우룡(편제) 100만원
- ▶ 장명호(편제) 100만원
- ▶ 이용석(편제) 100만원
- ▶ 진필호(편제) 50만원
- ▶ 하광연(보도) 30만원
- ▶ 하민웅(관리) 30만원
- ▶ 강성구(보도) 30만원
- ▶ 이한수(편제) 20만원
- ▶ 임부영(관리) 10만원
- ▶ 황진환(편제) 10만원
- ▶ 익명(보도) 10만원
- ▶ 김준원(기술) 10만원
- ▶ 진수웅(기술) 10만원



김우룡



장명호



이용석



진필호



하광연



하민웅



강성구



이한수



임부영



황진환



김준원



진수웅



회/원/동/정



김명수(편제) 10월 15일 저녁, 동송동 대학로에 있는 '낙산가든'에서 작년 '차재영선배님 9순 축하모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필호선배님 9순 축하모임'을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차재영, 구종희, 유수열, 이재휘, 이공희 등 예능부문 원로PD들과 방성근, 원만식 등 후배PD들이 참석해 老선배님의 9순을 축하했으며, '국민MC' 송해 씨도 참석해 과거

MBC에서 같이 일했던 추억을 나눴다. 이날 지출된 경비는 모두 김명수 회원이 부담했으며, 진필호 회원의 가족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떡 한 상자씩을 답례로 전달했다.



유무정(보도) 에세이집 『天, 鷄, 鳴 하늘, 닭, 운다』를 출간했다. 오랜 기간 연구해 온 인희선도仁仙道에 대한 소개와 현업 시절의 에피소드, 과거에 발표했던 글 등이 담겨있다.



차 회장, 신입회원들과 상견례 가져

차인태 사우회장은 10월 26일과 28일 두 차례 신입회원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올해 10월까지 사우회에 새로 가입한 회원은 총 21명이며 그 중 8명의 회원들이 상견례에 참석했다.

차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사우회 현황 소개, 회원 자기 소개,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 상견례가 끝난 뒤 전원 오찬을 같이 하며 사우회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무처는 신입회원들에게 회원수첩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차 회장과 신입 회원들과의 대화를 마련하는 자리는 신입회원들의 일정에 맞춰 11월에도 계속된다.



(왼쪽부터) 박규식, 송주한, 이효석, 나종석, 차상익



(왼쪽부터) 전인하, 조수원, 김낙현

사무처 리포트

상일동 '세렌게티'엔 특별한 '함박'이 있다



이석일 (사무처장)

세렌게티(Serengeti)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대평원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렌게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2002년 MBC 최삼규PD가 이끄는 제작팀은 이곳에 약 8개월간 머물면서 야생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해 창사특집 프로그램으로 선보였고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었죠. 그 스펙터클한 영상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바로 박화진(편제)회원인데, 박 회원이 '세렌게티'라는 이름의 카페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2018년에 안식년을 보내면서 퇴직 후 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은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은 없었어요. 2019년 어느 날 처남이 '상일동에 급하게 나온 커피숍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해서 여길 왔는데 주위 환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맘에 들었어요. 그

래서 바로 계약을 했죠. 물론 저도 아내도 사업 경험이라곤 전혀 없었지만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자신감'은 있었거든요.

박 회원은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인내심도 강합니다. 광활한 세렌게티 초원에서 잠든 사자가 움직일 때까지 매일 몇 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지루한 내색 한 번 안보였다는군요. 끈질기게 버텨서 기어코 생생한 장면을 잡아냈다고 합니다.

▶오픈하기 전에 커피 드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힘은 좀 들었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일이 재미있었어요. 드립커피의 향은 정말 좋아요. 전에 커피숍에서 알바를 했던 아들의 경험도 도움됐구요, 출가한 딸도 가끔씩 들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얘기하는데 귀담아 들을 꺼리가 많았어요.

가게 이름은 아내가 제안했답니다. 남편이 떠나면 아프리카 장기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한 점 두 점 가져오는 아프리카 토산품 목각 기념품을 만지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세렌게티에 대한 동경의 발로發露라고 할까요.

▶처음 몇 달은 손님들이 제법 있었어요. 반응도 좋았고, 근데 2.5단계가 발표

되면서 눈에 띄게 줄어드니까 커피만 팔아서 안되겠다라고요. 브런치로 함박스테이크와 연어스테이크를 개발했습니다. 아내가 조리사 자격증이 있었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껌바딤 정도는 가볍게 만듭니다. 샐러드도 우리 집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죠.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함박스테이크는 맛이 달라요. 예약 손님에 한해서 만들기 때문에 늘 신선한 고기와 재료를 사용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식품전문 마트 두 군데와 가락시장을 돌면서 재료를 구입합니다. 가게 출근은 8시, 퇴근 시간은...대중 없죠. 알바를 쓸 형편이 안되니까 모든 일을 부부가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지만 그게 맘대로 되나요. 급할 때는 혼자 복치고 장고치고 다 하죠.

▶앞으로 개발하려고 생각하는 메뉴가 몇 가지 있지만, 당분간은 지금의 요리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자주 오시는 분들의 취향이 확실하게 파악이 되고 나면 그분들의 기호에 맞춰서 변화된 레시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할 계획이구요. MBC에서 37년 일하는 동안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봤는데, 가게를 하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기분과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하.

메뉴에 집중하다 보니 인테리어 가꾸는 것은 미처 손도 못대고 있는데 다음 달쯤에는 가게 이름에 걸맞



는 인테리어 세팅에 착수한답니다. 세렌게티에서 찍은 박 회원의 사진도 걸고, 야생동물 영상도 준비하고, 기념품도 마련하고 등등...그렇죠. 레스토랑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도 큰 몫을 하거든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만 끝나면 우월한 경쟁력을 보여줄 자신이 있습니다. MBC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외국의 여러 도시와 시골을 가봤고, 드라마, 예능, 교양 등 갖가지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됐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기준과 참고가 됩니다.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315에 있는 아담한 레스토랑 '세렌게티'(02-442-4273). 서울한영외고가 근처에 있네요. 이곳을 지나는 사우회원님들 꼭 한번 들려 주세요. 이름도 예쁜 박화진 회원이 구름같은 미소를 얼굴 가득 담고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기품있는 안주인의 사근사근한 테이블 서비스는 덤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경조사항

구순: 이재영(기술) 32.1.26

팔순: 유흥열(편제) 42.1.2 노성석(관리) 42.1.4 유철환(편제) 42.1.18  
권오룡(편제) 42.1.27 이방근(관리) 42.1.28

고희: 김은휘(ANN) 52.1.2 고춘호(업무) 52.1.4 김철동(기술) 52.1.13  
임남규(관리) 52.1.26

회갑: 정현자(관리) 61.1.16 이정화(관리) 61.1.28

결혼: 정복근(편제) 딸 9.26 정길화(편제) 딸 10.24  
김일만(편제) 아들 11.1 최규철(편제) 아들 11.22  
장수남(편제) 아들 11.14

부음: 강 혁(보도) 장모상 9.3 서태건(기술) 장모상 9.22  
김영금(관리) 시부상 9.22 김준원(기술) 장모상 9.28  
허연희(보도) 장인상 10.5 박해선(대구) 배우자상 10.5  
주광순(관리) 시모상 10.7 윤병성(편제) 장모상 10.14  
이종현(편제) 모친상 10.21 윤광중(관리) 모친상 11.2  
이응주(편제) 부친상 11.5 한윤희(관리,감사) 모친상 11.9  
이순임(관리) 부친상 11.11  
고장석(편제) 모친상 • 박민정(ANN) 시모상 11.8

연회비

9월 양경운('20) 이양휘('20) 홍학표('20) 박한성('20)  
박해선('21, 80세 완납)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박영숙(관리)

1981년 11월 ANN로 입사. 아나운서실, 홍보심의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자산관리국(국장급)에서 정년퇴직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준희(관리)

9월 12일 별세. 향년 86세, 1960년 본사 총무부 입사, 1974년 전주MBC 총무부장 퇴사. 대성화학, 대성섬유 대표이사 역임.



윤준구(관리)

10월 25일 별세. 향년 77세, 사업국, 광고국, R기술국 근무, 2002년 정년퇴직 후 평통자문위원 역임



김은택(전주)

10월 27일 별세. 향년 81세, 1966년 전주MBC 기술부 입사, 1991년 퇴사.



차명륜(업무)

11월 10일 별세. 향년 74세, 1970년 TV영업국 입사, 1981년 한국방송광고공사로 전직, 2003년 전주MBC 서울사무소장 역임.

10월 김경일('20) 박성배('20) 이종현('20) 임동훈('21, 80세 완납)  
노홍식('20) 김재욱('21, 80세 완납) 정태웅('22, 80세 완납)  
진수웅('22, 80세 완납) 김우룡('19-'22, 80세 완납)  
장명호('23-'25, 80세 완납) 나명수('19-'20)

주소 / 전화번호 변경

편제: 김흥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77  
고일미 성북구 장월로 1길 28  
신준우 용산구 서빙고로17  
강철용 서초구 서운로 62  
박 종 영등포구 당산로31길32

업무: 이범수 강서구 가로공원로 82길 11

보도: 김용철 강남구 논현로51길25

기술: 안영제 경기 양주시 부흥로1833번길  
서태건 서울 강남구 개포로 264

관리: 조일동 영등포구 여의나루로126  
김경일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124  
강정수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374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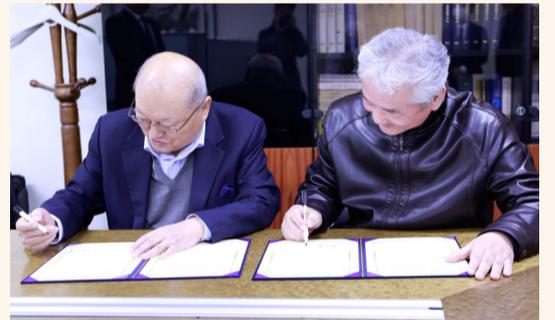
사우회, 동화인협동조합과 상조서비스 MOU 체결

11월 9일 사우회는 동화인협동조합 C&G라이프와 '상조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업무가 김낙현(관리)회원이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체가 주관한다는 점과, 저렴한 가격의 후불제로 하여 사우회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한 사우회원이 원할 경우 사우회 로고체가 인쇄된 그릇과 수저 젓가락 등의 물품세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수있도록 추진 중이다.

상조서비스 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사무처(02-722-741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회비와 발전기금 계좌 안내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또한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

관없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 뉴스데스크 50년, MBC가 다시 일어선다!



엄기영(보도)

예상했던 인사 발령이 났다. 보도국장이 바뀌었다. “혼자 계실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국장 방 앞을 왔다갔다하며 동정을 살피다가 마침내 때를 잡았다.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어! 엄 앵커? 고마워. 앉게,” 국장실은 난향(亂香)이 코를 찔렀다.

“엄 앵커! 앞으로 날 많이 도와줘야 되네. 데스크 시청률도 더 올리고! 하하”

“.....저” “응? 왜, 뭐 할 얘기 있나? 말해 봐.”

“저..... 뉴스데스크 앵커, 이전 좀 빼 주시죠. 체질에도 안 맞고...”

말끝을 흐리는 내게, 그렇게 소리치는 분이 아닌데, 벽력같은 호통이 떨어졌다.

“무슨 소리야! 그게 국장 취임 축하 선물이야?” “.....”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래. 힘들지? 그 동안 시간이 안 맞아 술 한잔 못했는데 오늘 한잔 하지. 오늘 데스크 모니터는 여기서 하겠네. 뉴스 끝내고 즉각 내 방으로 와!”

“엄 앵커!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어찌겠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안 그래?” 또 실패다. 다음날도 뉴스는 진행해야 하는데 나는 흠뻑 취해서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국장 인사 때마다 반복된 이런 시도는 무려 7년이 넘어서야 겨우 성사됐다. 1996년, 후임 이인용 앵커. 나는 날아갈 듯 기뻐서 새 앵커가 행운의 일레븐 ‘11월 11일’ 뉴스를 진행할 수 있

도록 며칠 더 시간을 미뤄 버튼더치를 해줬다. 그걸로 뉴스데스크와는 ‘아름다운 이별’일 줄 알았는데 그 뒤 5년 만에 다시 잡혀 와 2008년까지 6년여를 더 했다. 도합 13년 2개월. 그렇게 나는 뉴스데스크 50년 역사에 ‘최장수 앵커’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13년 2개월. 그 기간 동안 뉴스데스크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TV뉴스의 대명사가 됐다. 부족한 내 능력에도 불구하고 뉴스데스크가 최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여러 요인들 중 한 가지를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격려(激勵)”라고 대답하겠다. 그것은 MBC를 대표하는 말이기도 하다.

앵커 뿐 아니라 평기자를 지나 보도국장, 사장에 이르는 동안 나는 과분하게도 많은 사람들로 부터 많은 격려를 받고 살았다. 뽀죽 뽀죽한 사람들, 비판하는게 체질이 돼 서로 찌르고 상처주기 쉬운 기자(記者)들이지만, 타 언론사 사람들에게 MBC를 물어보면 첫 마디가 “아! 거기는 분위기가 너무 좋지!”였다. 분위기가 좋은 데서 격려 받고 또 격려해 주며 커 온 사람들, MBC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좋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뉴스가 좋아지지 않을 수 있나. 누군가 특종이라도 나오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많은 데도 서슴없이 TV채널을 11번에 고정하고 외치기까지 한다. “뉴스는 역시 MBC지!”

입사한지 3년이 되던 1977년, ‘자연보호 캠페인’ 취재를 위해 경찰 비행기를 타고 설악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김포에 이르렀을 때, 도무지 착륙을 하지 않고 계속 선회하던 비행기 속에서 “엔진 트러

블!”이라는 외침을 듣고 나서 다시 소리를 들은 것은 열닷새 후 병원에서였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경찰 병원에서 한양대 병원으로,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오가며 거의 영안실로 들어가기 일보직전이었다. 동승했던 경찰 두 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당시 ‘이 상태로 는 희생이 어렵다’고 고개를 젓던 의료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친구는 살려야 한다’고 끈질기게 의료진을 설득하고 다그친 분들은 이환의 사장님을 비롯한 ‘MBC사람들’이었다. 임신 중 참변을 당해 황망한 아내를 붙들어 주고, 매일 병실을 찾아 와 응원해준 MBC사람들의 ‘격려’가 있었기에 나는 끔찍한 악몽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니 MBC에서 받은 수많은 격려의 시작은 이 때부터였다.

뉴스데스크 50년. 어느 시절이라고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 돌이켜 보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어떤 권력도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MBC’를 그냥 놓아 두진 않았다. 대통령이야 “언론 자유를 향한 길은 끝이 없다. 무엇보다도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하면 끝이지만 권력의 속성이란 게 어디 그런가.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019년에 밝힌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세계 41위. 2016년에는 70위까지 추락했다가 이제 아시아를 통틀어 가장 좋은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언론인으로서 어찌 만족할만한 지표라 할 수 있겠는가? 그 괴리를 MBC는 “잘했다. 좌절하지 마라. 힘내라. 충분히 이 난관 이겨 낼 수 있다”라는 선, 후배 격려로 이겨냈다. 그 힘이 MBC를 최고로 만들었고 지금 필요한 덕목도 바로 이것이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는 1982년 이장호 감독이 대종상 작품상을 받은 영화 제목이지만, 기자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후배들에게 내가 즐겨 들려주는 말이기도 하다. MBC가 오랜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언제나 이 땅의 ‘평



범한 국민들’ 편에 서서 방송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름만 들어도 온 국민이 다 기억하는 ‘22년 최장수 프로그램’ 전원일기를 비롯해서 수사반장, 장학퀴즈, 뽀뽀뽀, 인간시대, 웃으면 복이 와요 등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유아에서 학생, 청장년 층에까지 국민대중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과 호흡을 함께 하므로써 사랑을 받았고 MBC뉴스 또한 이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다. 사실 이 땅에서 ‘참 언론인이 되겠다’고 맘 먹고 입사한 기자들이 그 초심을 지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취재 대상에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재벌과 기업인 등 우리 사회의 강자가 포함되다 보니 자칫 그 계층의 일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기사도 그 쪽 편에서 쓰기 쉽기 때문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선배교수 존 롤스의 정의론(1991년)을 다시 읽는다. 그가 말하는 ‘정의의 제1원칙’은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인간의 존엄성 등이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정의의 제2원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한 배분이 있을 때에는 가장 어려운 사람,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롭다고 본다. 약자를 부조하고 힘 실어주는 부추김이 바로 정의를 추구하는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뉴스데스크 또한 낮은 데로 임하는 기자들의 집합체여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다. 그럴 때 비로소 MBC는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 50년! 서로 격려해주는 내부 분위기와 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따스한 시각은 삼투압처럼 세상에 배어나간다.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하는 강한 뉴스! MBC뉴스데스크가 다시 새 역사를 써 나가길 응원한다.



김승일 칼럼

# 소통 疏通의 터널



김승일 (편제·이사)

터널에 들어서서 차폭등車幅燈을 켜지 않는 운전자가 있다. 무심히 챙기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더러는 으레 그런다.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어두운 곳에 들어서면 안전을 위해 차폭등을 켜야 한다. 차폭등 켜고 조심조심 운전하는 걸 소심하다고 보는 걸까. '이 정도 어둡다고 뭘 그리 유별나게 구냐'고 대범해 하는 걸까.

자기 눈이 좋아서일 께다. 하지만 다 자기처럼 눈이 좋은 건 아니다. 눈이 불편한 사람도 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시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런 분들에게 차폭등 켜지 않는 차량은 식별하기 힘들다. '아차' 하면 함께 위험해 질 수가 있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에 터널에서는 차폭등을 꼭 켜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모두가 자기처럼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기와는 다르게 알고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아는 걸 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걸 그 사람이 모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다. 각자 다른 색안경 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빨간 색안경 끼고 하늘 보면 파란 하늘이고,

파란 색안경 끼고 보면 빨간 하늘이다.

'제3자 효과the third-person effect' 이론이 있다. 사람들이 미디어의 영향력을 평가할 때 일반 사람들에게 대한 영향력과 자기 자신에 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이중 잣대를 갖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선정적인 방송 프로그램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염려하는 시청자가 자기 자신은 분별력이 있어 그리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영향력은 과소평가하고 남들에 대한 영향력은 과대평가하기 쉽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해병대는 일본의 섬 이오지마-유황도硫黃島-를 점령했다. 유황도는 태평양상의 전략적 요충지로, 미군은 2만 4천 800여명의 사상자를 냈고 일본군은 2만 여명이 자결 옥쇄한 2차 대전 최대 격전지 중 하나다. 해병 6명이 유황도 정상에 성조기를 꽂아 세우는 모습의 동상으로 유명한 그 전투다.

당시 일본군은 이오지마에 주둔하고 있던 흑인 사병과 백인 장교로 편성된 부대에 선전 뼈라를 뿌렸다. 흑인 사병들에게 투항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전단 내용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흑인 사병들이 아니라 오히려 백인 장교들이었다. 그들은 흑인 사병들이

그 전단 내용에 영향을 받아 탈주할까 봐 염려하여 이튿날 부대를 철수했다. 1949년과 1950년 사이에 프린스턴대학의 사회학자 필립스 데이비슨W.Phillips Davison은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면서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제3자 효과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MBC라디오에서 정치 다큐드라마 '격동 50년'을 1997년부터 삼년간 연출하면서 사실에 충실하려고 이영미 작가와 함께 정치인 80여명을 취재하고 증언을 녹음했다. 증언자에 따라 같은 사건을 다르게 이야기한 경우가 꽤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을 두고 어느분은 노 대통령의 결심이라고 했고, 다른 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보았다. 특히 김용갑 전 의원은 자신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직언을 해서 이루어졌다'고 했다.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본 대로 증언했을 게다. 어떤 증언도 완전한 거짓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증언이란 완전한 사실일 수도 완전한 거짓일 수도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최근 몇몇 정치인들이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아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자신이 지어 낸 시각으로 사안을 봐 달라고 강변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자신보다 더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도 그랬을까. 그런 생각하고도 그랬다면 국민을 얕잡아 본 짓이다. 게다가 "거짓은 역사의 강을 건너지 못한다." '격동 50년' 홍보할 때 썼던 말이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도 남과 나를 다른 잣대로 보는 시각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특정 잣대를 대어 남을 비난하고 몰아세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같은 잣대로 그들을 보면 민망하게도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들이 내세운 잣대란 남에게 해당되는 것일 뿐이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트라시마코스 Thrasymachus의 말이 나올 만하다. 권력자들의 잣대가 강자의 도구로 쓰이는 경우다. 무례한 짓을 저지르고도 상대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한다. 늘 되돌아봐



야 한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더없이 엄한 것은 아닌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루 6:42)

누구나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운전 능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90퍼센트 이상이 "나는 평균 이상으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물론 한국도 다를 게 없다. 송동근은 강연을 할 때마다 청중에게 "여러분 중에서 자신이 비슷한 나이 또래 및 같은 성별의 평균보다 자동차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손 드는 사람들은 보통 10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터널은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 땅속이나 산이나 바위를 뚫어 낸 길이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 세대, 성별 같은 집단 사이 장벽이 점점 높아가는 요즘이다.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터널을 뚫어야 한다. 편견偏見도 깨고, 오해誤解도 허물고, 아집我執도 파내야 한다. 소통의 터널을 잘 만들었다고 소통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나 자신과 남이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한다.



인터뷰

#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만 9년 4개월 동안 집거하며 성경 신.구약 66권을 샅샅이 읽고 분석했다는 최창섭(ANN)회원께서 어느 가을날 아담한 책자를 들고 사우회 사무실을 찾았다.



### ▶제목이 상당히 도전적인데요.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성경에 대한 책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류無誤謬이므로 성경은 일점일획의 오류도 없는 책’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려고 쓴 책입니다.

### ▶어떤 계기로 책을 쓰게 됐나요?

2004년 회사를 퇴직한 뒤 프리랜서로 5,6년 일하다가 2010년 현업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돌아보니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은혜에 뭔가 가지적인 보답을 하고 싶어 성경 66권을 녹음해 CD 6장에 담아 1,400세트를 무상으로 나눠드렸습니다. 1년 3개월 걸렸죠. 근데, 녹음하는 과정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수시로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제 생각을 들던 녹음실 사장님(목사님)께서 “당신은 아나운서라 우리말도 잘 알고 하니 그런 내용으로 책을 써보면 어떤가”라는 권유를 하셨습니다. 첨에는 흘려들었는데 어느 날밤에 그분의 권유가 깊은 울림으로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011년 5월 17일입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작심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어떻게 작업을 하셨나요?

시중에 있는 성경들이 단어 사용면에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버전 성경 10권과 영어 버전 성경 5권, 히브리어와 헬라이어 성경 사전, 성경 지도, 성경 주석서 등 19권의 자료들을 비교, 대조해가며 올해 9월까지 만 9년 4개월 10일 동안 앞뒤가 안맞는 문맥 정리와 Written Language를 Spoken Language로 바꾸는 작업에 몰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어처

구니없는 오류를 포함해 꽤 많은 문맥 상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류들은 사람들이 번역하거나 옮기면서 발생한 것이지 기독교나 하나님의 정체성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 ▶작업하는데 어떤 부분이 특히 힘들었나요?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건 워드 작업이었습니다. PC자판을 제대로 다루본 일조차 없는 사람이 한글 입력하는 법부터 배워가며 작업하다 보니 저장하는 걸 깜박해서 몇 시간 작업한 내용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참극도 몇 번 있었어요. 두 번째는 버전마다 표현들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수차에 걸쳐 여러 사람들이 외국어로 된 내용을 번역하다 보니 영어 버전은 히브리어나 헬라이어 버전과 맞지 않는 곳이 있었고, 우리말 버전도 영어 버전이나 히브리어 버전과 표현이 다른 곳이 보이는 식입니다. 또 영어 문장은 짧은데 우리말 버전은 쓸데없이 긴 문장도 있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말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물론이고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경우도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을 넘어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 ▶왜 그랬을까요?

1887년에 구약성경, 1911년에 신약성경이 처음으로 우리말 완역이 됐으니까 당시의 국어 실력이 그 정도라서 그랬겠죠. 그렇더라도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들은 그런 오류나 표현의 미흡함을 잘 알고 있을텐데도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손보지 않고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성경은 ‘일점일획도 오류가 없는 책’이 아니라, 손으로 필사한 사본을 번역한 책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체성에는 전혀 오류가 없지만 지엽적인 것에는 오류가 있는” 책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 ▶오류의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시겠어요?

구약 사본의 오류 한 가지를 예로 들면, 요담왕의 통치기간인데요. 열왕기하 15장 30절에는 “유다의 요담

왕 20년에 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세 절 밑인 33절에는 “요담이 16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0장 15절과 개정개역성경 역대상 1장 13절에는 “가나안은 장자長子 시돈과 헛을 낳고”로 적혀 있는데 마치 맏아들 들을 낳은 표현입니다. 올바른 표현은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뒤를 이어 헛을 낳고”입니다.

신약을 볼까요? 개역개정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통일된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개역개정성경, 헬라이어지역성경, 킹제임스성경, 현대어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했어요. 공동번역성서와 회복역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라고 다르게 씁니다. “Christ died for our sins”를 위 다섯 성경은 직역했고 아래 두 성경은 의역한 거죠. 우리말 ‘위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잘 되도록 도와주다’ 또는 ‘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도와주려고 죽으셨다”는 어처구니없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비전성경에는 초등학생이 봐도 웃을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7절에 “바로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다른 전차들을 데리고 갔는데”라고 썼습니다. 우리말을 배운 유치원생도 장난감을 ‘데리고 갔다’라고는 말하지 않죠. ‘데려가다’는 사람이나 동물과 함께 갈 때 쓰는 단어지 물건을 갖고 갈 때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 ▶말씀을 듣고 보니 확실하게 손봐야 할 문장들이 많군요.

오류가 전혀 없는 성경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원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본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많은 역사가들은 아마도 소실됐으리라 봅니다.

참고로 성경을 출판하는 사람들

은 사본을 사본이라고 하지 않고 ‘원래 있었던 문장’이라고 해서 이를 줄여 ‘원문原文’이라고 합니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으나 ‘원문’을 ‘원본原本으로 착각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 보여 석연치 않습니다. 사본寫本을 사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입니다.



### ▶일반 신자들 뿐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참고가 될 책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저 성경의 작은 흠을 들춰내려고 이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교인들도 ‘알 것은 알고 믿자’는 취지에서 썼습니다. 사본을 번역한 것이어서 비록 지엽적인 흠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정보 교환도 할 수 없었던 시대에 1,600년에 걸쳐 40여명이 쓴 성경 사본에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정체성에 흠이 되는 것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성격을 보는 것과, 지엽적인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성경을 보는 것. 과연 하나님은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실까요. 요한 계시록 22장 15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

### ▶기왕 발간한 역작이 많이 팔려서 장로님께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1,000부를 발간했는데 제 돈 6백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수익을 생각했다면 애당초 자비출판을 안 했을 겁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믿음 생활과 아나운서 생활을 한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이 가는 문맥이나 문장이라면 다른 분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하는 노파심에서 시작한 작업이 자그마한 결실을 맺었으니 저는 이것으로 만족하구요,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즐겁습니다.

〈대답: 편집장〉

# 포도밭에서 만난 행복



장 덕 수(편제)

10월 14일, 마침내 올해 포도농사가 끝났다. 현미식초 2리터를 1,000평 포도밭에 스프링클러로 고루 뿌려주는 작업이 한 해 포도농사의 마지막 작업이다. 현미식초는 포도송이를 생산해내느라 고생한 포도나무에게 일종의 '산후조리용'으로 뿌려준 것이다. 이른 봄부터 가지치고, 순 따주고, 열매 숙여주고, 봉투 싸고, 퇴비 주고, 친환경 방식으로 병충해 방역 해주고...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수많은 작업들로 포도밭에서 땀 께나 흘렸다.

그리고 결과는 작년 수확량의 70% 수준. 유난히 긴 장마가 원인이다. 한창 포도가 익어야 할 때 54일 동안이나 햇살을 보기 힘들었으니 포도송이들이 제대로 익을 리가 없질 않은가.

모든 과일나무가 그렇듯이 포도나무도 많은 포도송이들을 가지에 만들어 놓는다. 이 포도송이들의 대부분을 송이숙기, 알숙기 등으로 숙여내고, 포도가 지 당 한 두개의 송이만을 남겨놓는다. 그렇게 남겨진 포도송이들에 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제대로 익게 하는 것이 포도농사법의 기본이다. 그런데 올해는 햇볕

으로부터 생산되는 양분이 충분치 않아서 포도송이들이 제대로 익지 않았고, 제대로 익지 않은 포도송이들은 당도가 형편없어서 따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잘 익은 포도송이들은 추석 전에 따서 판매했고, 모양이 빠지는 허드레 포도들은 추석 이후 몽땅 따서 포도주 통으로 집어넣었다. '하늘이 하는 일에 사람이 거드는 것이 농사'란 말을 피부로 느낀 올해 농사였다.

20여년 전, 갑작스런 건강이상 때문에 일상으로부터의 도피처로 주말에 지낼 작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적당한 땅을 찾았고, 우여곡절 끝에 가평 깊은 산골에 터를 잡았다. 구입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연으로 천여평의 농지까지 구입하게 됐다. 집터를 뺀 천평의 농지는 처치곤란이었는데 동네 노인 한 분이 그 땅에 포도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서 색다른 제안을 해 왔다.

'임대료를 적게 내는 대신 포도밭을 만들어 10년 동안 포도농사를 짓고, 후에 그 포도밭을 내게 넘겨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 노인은 12년간 포도농사를 짓다가 내게 포도밭을 물려줬고, 주저하는 내게 동네 농사꾼 한 분이 포도재배법을 알려주겠다고 내 등을 떠밀었다. 그렇게 시작된 포도농사가 올해로 8년째다.

포도나무 300그루가 넘는 천평 포도밭에서 초봄부터 가을 문턱까지 애먼 글면 일을 했다. 혼자서 일주일에 최소 3일 정도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한다. 처음에는 '헬스클럽에서 운동한 셈치자'는 심정으로 포도밭에서 땀을 흘렸다. 그러나 흘린 땀이 많아질수록 포도나무 한그루 한그루에 애정이 생기고..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나의 은퇴 후 삶의 반력식물이 됐다. 포도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애당초 어

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힘들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뼈저리게 깨닫게 됐다.

포도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도무지 생각처럼 되질 않았다. 더구나 무농약 재배라서 더 어려웠다. 제때 물 주고, 비료 주고, 친환경 약제 뿌려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포도나무들이 병을 앓았고, 죽어버렸다.

포도밭을 파헤치는 멧돼지를 비롯한 각종 야생동물들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힘들어 한때 깊이 좌절하기도 했다. 제일 힘든 것은, 아니 불가항력적인 것은 하늘 상황 즉 날씨였다.

4년전 겨울, 내 포도밭이 위치한 가평군에 한파가 밀어닥쳤다. 1월 중순에 최저 영하 25도를 밀도는 강추위가 열흘 이상 포도밭을 덮쳤고, 추위를 견디지 못한 포도나무들의 80%가 얼어 죽었다. 이후 죽은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새 묘목을 심고, 그리고 키우고.. 하필 그럴 때 산토끼가 나타나서 애써 심은 포도묘목의 싹을 먹어치워 무척 분통이 터졌었고, 그리고 그 산토끼가 밧에 걸려 죽었을 때 귀여운 산토끼의 처참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통과해 했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80%가 얼어죽었던 포도나무는 지금 70%까지 복구됐다. 부지런히 새 묘목을 심고, 죽은 포도나무 뿌리에서 새롭게 돌아나는 싹을 받아 키우면서, 포도밭을 수시로 습격하는 야생동물들을 막기 위한 120여 미터의 철조망 펜스를 설치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온전히 혼자서 해냈다. 천평 포도밭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은 기본적으로 나 혼자 한다. 가끔 방문한 친구들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혼자서 다 할 수 있느냐고' 신기해하지만 매일 헬스클럽에서 땀흘려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포도밭에서 일을 해보니까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혼자 일을 하다보면 손발은 열심히 일



을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러 상념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는 '자연에서의 생존방식이나 속세에서의 삶의 방식이 그리 다르지 않다'는 새삼스런 발견이었다.

TV PD로 30년 가까운 세월을 일했다. 프로그램 기획하고, 연출하고, 방송하는 게 그간의 내 일이었다. 그런데 요즘 포도농사일이 방송제작 작업과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새봄이 되면 '올 한해 제대로 포도농사를 지어보겠다'는 다짐과 함께 의욕적으로 시작해 나름 열심히 농사를 짓고, 마침내 그 수확의 결실을 보고, 그 결실을 판매하는 그 모든 과정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연출하고 방송을 하고, 그 결과에 노심초사하던 시절에 겪었던 과정과 어쩔 그리도 흡사한지..

포도나무를 건강하게 키워 질 좋은 포도를 생산해 내면 농부로서 더 할나위 없이 기분이 좋고 보람을 맛본다. 하지만 그 다음 더 만만치 않은 일,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수확한 포도를 판매하는 일이다.

포도수확철이 되면 포도농사꾼은 포도장사꾼으로 변신을 해야 하는데, 내 경우에는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 그렇다해도 포도나무에 싹이 트고, 가지가 뻗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리고 삼백여 그루의 포도나무들이 생명력을 뿜어내며 내 곁에서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난 엄청 커다란 희열과 보람을 느낀다.

내 삶의 반력이 되는 포도나무를 위해 내가 흘리는 땀과 정성은 그 자체로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난 포도밭에서 행복을 만났다.



## 다시 읽는 그때 이야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작은 일,  
바로 그 일에 충실하라”차인태  
(사우회장)

MBC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한 것은 정훈장교로 전역할 무렵의 일이었다. 군에 입대하기 전 두 차례에 걸친 도전 끝에 KBS 아나운서가 됐고 교육까지 마친 상태였다. KBS 시험을 칠 때만 해도 ‘제발 방송국 문턱만이라도 넘었으면..’ 했는데 군복을 벗을 때가 되니 생각이 달라졌다. 때는 바야흐로 경쟁의 시대였다. 방송사 간 스카우트 열풍이 뜨거웠고, 특히나 국영방송 KBS에서 새로 생긴 MBC로 옮기는 방송인들이 많았다.

신생 방송국 MBC는 KBS보다 월급이 많았다. KBS 직원은 문공부 소속 공무원으로 최하위직의 경우 월급이 5천원에 불과했지만 MBC 직원은 3배나 많은 만오천원을 받았다. 당시만 해도 방송쟁이들의 월급이라는 게 입에 풀칠할 정도도 못 됐던 까닭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아나운서까지 있었으니, ‘월급’은 방송쟁이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더구나 차석으로 합격해 교육까지 마친 내 첫 발령지가 KBS 지방 방송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KBS를 포기하고 들어간 MBC지만, 막상 문안으로 들어서 보니 앞길이 막막했다. 방송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수많은 아나

운서들이 개편 때마다 자신의 쓰임새를 고민했다.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죽으면 어떡하나’, ‘새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에서 내 역할은 무엇일까’ 등등. 시간이 흐를수록 ‘휴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연고’와 ‘출신’, ‘배경’을 유난히 따지는 우리 사회에서 나는 지연, 학연, 혈연,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무엇에도 거리낄 것 없이 자유로웠지만, 어디에서도 주류가 될 수 없는 존재였다.

우선 나는 실향민이다. 군대에서도 주요 보직엔 북쪽 출신이 없었던 시절. 이른바 ‘육법당’(육사, 서울법대)이 잘나가던 시절이었다. 게다가 차씨는 희성稀姓이다. 성씨 따위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남자들의 세계 특히 사회생활에서는 그 끈끈함이 굉장하다. 학연은 어떤가? 서울상대, 고대법대, 중앙대 약대를 쳐주던 그때, 음대 그것도 성악을 한 내가 아나운서가 됐다는 건 걸길로 빠져도 한참을 빠진 셈이었다. 좌절은 상실감으로, 상실감은 다시 열패감으로 이어졌다.

그때 휘청거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지탱해준 말이 “nowhere”였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 벽돌을 쌓아 올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보직, 호봉, 승진, 직급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새롭게 TV방송을 시작하는 MBC에서 “아나운서 차인태면 뭐지 뭐가 더 필요한가”를 생각했다. 그래서 작은 일, 해도 빛이 안 날 것 같은 일까지 최선을 다하려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친구가 생겼고, 기뻐 언덕이 생겨났다. 내게는 지연, 학연, 혈연만큼이나 든든한 ‘백’이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작은 일, 바로 그 일에 충실하라” 이 말은 지금도 변함 없는 내 삶의 지침이다.

초짜 아나운서 시절에 내가 얻은 또 하나의 교훈은 ‘노력의

열매는 정직하다’는 것이다. 정확한 표준어 발음, 올바른 우리말 구사를 위해 선배 아나운서들의 방송 테이프를 밤을 새며 필사했고, 단 3초짜리 방송을 위해 수십 번, 수백 번씩 연습했다. 연습 별레만이 아름다운 나비의 날개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요즘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얼굴은 기본, 여기에 몸까지 받쳐줘야 한다’는 말이 거침없이 들려 온다. 여자는 V라인 얼굴에 S라인 아니면 X라인이어야 하고 남자 역시 주먹만한 꽃미남 얼굴에 골근육 아니면 말근육이어야 시선을 끄는 세상, 아나운서 지망생들의 ‘몸 만들기’ 역시 일종의 서바이벌 코스 중 하나가 돼버렸다.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 없이 얼굴 좀 예쁘다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방송반 활동 좀 했다고 아나운서가 되겠노라 방송판에 부나비처럼 뛰어드는 지망생들도 많다.

‘아나운서는 텔레비전 스타다?’ 맞는 말이다. 금상첨화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는가?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아나운서의 기본은 ‘우리말 구사능력과 전달능력’이다. 목소리의 질, 성량이나 발음이 먼저 갖춰진 다음에야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진 지식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순서다. 아나운서로 입문해서 처음 받는 훈련도 ‘읽기’다. 그런데 대체로 글자를 대충 보고 제대로 읽지 못한다. 예를 들면 ‘차갑다’를 본디 발음하지 않고 편한대로 ‘차갑다’로 발음한다. 양모음은 양모음끼리 음모음은 음모음끼리 읽는 것이 발음의 기본인데도 그것이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혹은 입에 밴 습성 때문에 배운 내용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신입 아나운서들에게 내가 꼭 해주는 말이 있다.

“좋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좋은 언어습관부터 몸에 들러붙게 해야 돼”

한마디로 체화體化, 육화肉化다. 육화된 언어습관은 위기의 순간에,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에서 빛을 발한다. 방송을 하다보면 정해진 원고없이 말해야 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는데,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자주 쓰는 말, 추임새나 억양이 쏟아져 나온다. 생방송, 그것도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아나운서나 기자가 비문非文을 쓰거나 적절치않은 추임새를 남발해서 분위기를 망치거나 비난을 받기도 한다. 실수한 사람은 진땀이 나겠지만 보는 사람은 한심하다.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있건 정확한 발음과 바른 말을 구사할 수 있어야 진짜 아나운서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원칙, 그것은 ‘아나운서는 언어언사言語運士’라는 고전적 정의다. 고운 말, 바른 말이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연습하고 연습하라. 연습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

아나운서에게 방송과 일상은 하나다. 적어도 나의 언어습관에서 방송과 생활은 하나였다. 방송에서 철저히 표준어를 구사하면서 일상생활에서는 금방 흐트러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방송사에 있던 집에 있던 입운동 즉 개구開口운동을 열심히 했다.

달리는 말을 계속 달리게 하는 것보다 멈추게 하는 게 더 어렵다. 사람의 말도 그렇다. 숨 돌리기 (pause), 끊어읽기가 중요하다. 이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로 잘못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제부터제가드리는말씀은’이라고 쉬지않고 후르르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제부터/제가 드리는/말씀은’이라고 중간중간 끊어 말하는 것이 전달력도 좋고 공감대도 높다. 공감은 설득으로 이어진다. 좋은 연설이나 좋은 스피치는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합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나 역시 ‘숨돌리기의 미학’을 깨우친 건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말을, 더 많은 의미를, 더 많은 감정을 담을 수 있다는 걸 알게되는 순간 풀잎을 뜯던 애벌레는 푸른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된다.

〈2009년 발간한 자서전 “흔적”에서〉

